



활동 1

- (1)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 (2) 널빤지를 널판지로 잘못 쓸 뻔했습니다.
- (3) (예시 답안) 주꾸미를 쭈꾸미로 잘못 썼던 적이 있습니다.

활동 2

(예시 답안)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어.

활동 3

꿀불건

꿀불건

뜻: 하는 짓이나 겉모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림.

깍듯하다

깍듯하다

뜻: 예의범절을 갖추는 태도가 분명하다.

넌즈시

넌지시

뜻: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따리

또아리

뜻: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또는 그런 모양.

활동 4

(예시 답안)

낱말	내가 만든 문장
꿀불건	새치기 하는 저 사람은 꿀불건이다.
깍듯하다	손님을 깍듯하게 대하다.
넌지시	넌지시 바라보다.
따리	구렁이가 따리를 들고 있다.

활동 5

(예시 답안)

잘못 쓴다고 생각되는 말	국어사전에서 찾은 말
쭈꾸미	주꾸미

초생달	초승달
치솔	칫솔



헛갈리는 말

5~8쪽

활동 1

- (1) 정후는 졸업기 광고지를 보고 있고, 윤서는 물비누를 보고 있다.
- (2) '틀리다'와 '다르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적다'와 '작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3) (예시 답안) '가리키다' 와 '가리키다'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활동 3

(예시 답안)

이름	헛갈리는 단어
홍길동	적다 작다
김철수	틀리다 다르다
이영희	가리키다 가르치다
박수진	조리다 졸이다

활동 4

적게, 다르다, 가르쳐, 조리다에 ○표

활동 5

(예시 답안)

낱말	내가 만든 문장
틀리다	수학 시험 1번 문제 답이 틀리다.
다르다	내 얼굴과 친구 얼굴이 다르다.
작다	내 동생 키가 나보다 작다.
적다	이번 달 용돈이 적다.
가리키다	친구가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키다.
가르치다	저녁에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다.
졸이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다.
조리다	멸치를 간장에 조리다.

활동6

다르다 작다 졸이다 가르쳤다 조리다

다르다	틀리다	조리다
가르키다 (가르켰다)	가르치다 (가르쳤다)	가리키다 (가리켰다)
졸이다	적다	작다



곱지 않은 말

9~12쪽

활동1

- (1) (예시 답안) 곱지 않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 (2) (예시 답안) 욕설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3) (예시 답안) 점심시간에 축구를 할 때 상대방 친구가 저에게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욕을 들으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활동2

(예시 답안) 욕설은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전하는 데도 도움이 안 돼.

활동4

- 첫 번째 철수 표정: (예시 답안) 당황한 표정 또는 화난 표정
- 첫 번째 철수 말풍선: (예시 답안)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왜 욕을 하고 그러니?
- 두 번째 철수 표정: (예시 답안) 미안한 표정
- 두 번째 철수 말풍선: (예시 답안)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활동5

(예시 답안) 나는 어제 저녁에 친구에게 장난으로 욕을 한 적이 있어. 나는 장난친 건데, 친구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 앞으로는 장난으로도 욕을 쓰지 않을 거야.

활동6

(예시 답안) 앞으로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며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할 것이다.



활동 1

- (1) (예시 답안) 친구들이 가늠하는 모르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 친구들이 통신 언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 (2) 섬, ○○, 나, 강
- (3) (예시 답안) 소외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활동 5

- (예시 답안)
- 실천 사항 1: 줄임말을 쓰지 않는다.
- 실천 사항 2: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실천 사항 3: 때와 장소를 고려하여 사용한다.



활동 1

- (1) 철희와 헤미가 어른들은 모르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 (2) (예시 답안) 네, 있습니다.
- (3) (예시 답안) 지난 주말에 친구 집에서 놀 때, 친구 어머니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 못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활동 3

- (1) (예시 답안) 은어를 썼습니다. / 우리끼리 쓰는 말을 썼습니다. / 어른들은 모르는 말을 썼습니다.
- (2) (예시 답안) 어른들과 아이들이 대화가 잘 안 통할 것 같습니다. / 어른들이 아이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활동 4

(예시 답안) 우리끼리 쓰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

활동 5

(예시 답안)

우리끼리만 쓰는 말	대신할 말 찾아보기	가장 적절한 말 선택하기
최애	정말 좋아하는 것 아주 아끼는 것 매우 사랑하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
꿀잼	정말 재밌다. 아주 우스꽝스럽다. 매우 웃기다.	정말 재밌다.
인생샷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 무척 소중한 사진 아주 잘 나온 사진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



활동 1

- (1) '명소'라는 한자에서 온 말을 '이름난 곳'이라는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 (2) 명소
- (3) (예시 답안) 독서를 할 때, 한자로 된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활동 4

낱말	한/우	낱말	한/우
명소	한	이름난 곳	우
가면극	한	탈놀음	우
집	우	가옥	한
간식	한	새참	우
감사	한	고마움	우
잔반	한	남은 음식	우
얼마 동안	한	당분간	한
대하	한	큰새우	우
많이(크게)	우	대폭	한
가격	한	값	우

활동 5

(예시 답안)

한자에서 온 말	우리말
금일	오늘
익일	다음날, 이튿날
잉여	나머지
주시하다	눈여겨보다
용이하다	쉽다



활동 1

- (1) 빵과 망토
- (2) (예시 답안) 텔레비전, 버스 등

활동 2

(예시 답안)

다른 나라 말(외국어)	우리나라 말
오뎅	어묵
스시	초밥
홈페이지	누리집
셰프	요리사
내비게이션	길도우미

활동 4

(예시 답안) 아름다운 우리말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 주기 위해서야.

활동 5

다른 나라 말	우리 모듬이 바꾼 표현	국립국어원에서 순화한 표현
네티즌	생략	누리꾼
다크서클	생략	눈그늘
립싱크	생략	입술 연기
메신저	생략	쪽지창
캡처	생략	장면 갈무리
파이팅	생략	아자

보충

(예시 답안)

쿵푸 팬더 무술 하는 곰	인사이드 아웃 안과 밖을 뒤집다.
보스 베이비 우두머리 아기	업 위, 위로
몬스터 호텔 괴물들이 사는 집	스파이더 맨 거미 인간



활동 1

- (1) 동생은 ‘만큼’을 앞의 말에 붙여 썼고 오빠는 ‘만큼’을 앞의 말에 띄어 썼다.
- (2) (예시 답안) 뽀, 대로, 만한 등
- (3) (예시 답안)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으면 문장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활동 2

(예시 답안) 문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

활동 4

이	만	큼		더		먹	을	게	.					
먹	을		만	큼		가	져	가	.					
네		뜻	대	로		하	렴	.						
하	고		싶	은		대	로		하	렴	.			
소	중	한		친	구	는		너	뿐	이	야	.		
너	와		나	는		다	를		뿐	이	야	.		
여	행	만	한		것	이		없	지	.				
그	곳	은		가		볼		만	한		곳	이	야	.

활동 5

(예시 답안) 누나만큼 열심히 공부한다. /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다. / 단지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 건강만한 것은 없다.

활동 6

(예시 답안) 독서 감상문을 쓰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활동 1

- (1) 쓰지 말아야 할 겹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 (2) 동해입니다. 왜냐하면 동해 바다는 바다의 의미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3) 가로수 나무, 과반수 이상

활동 3

동해 바다	동해	가로수 나무	가로수
×	○	×	○
과반수	과반수 이상	과정 속에서	과정에서
○	×	×	○
농사	농사일	생일	생일날
○	×	○	×
국화	국화꽃		
○	×		

활동 4

(예시 답안)

- 노모(○) / 늙은 노모(×) 여행(○) / 남은 여행(×) 기간(○) / 기간 동안(×)
- 부활하다(○) / 다시 부활하다(×) 고목(○) / 고목 나무(×)
- 철로(○) / 철로길(×) 당시(○) / 그때 당시(×) 몇 월(○) / 몇 월 달(×)
- 새해(○) / 신년 새해(×) 내면(○) / 내면 속(×) 백발(○) / 하얀 백발(×)
- 옥상(○) / 옥상 위(×) 누전(○) / 전기 누전(×) 난관(○) / 어려운 난관(×)
- 호피(○) / 호피 가죽(×) 며칠(○) / 며칠날(×) 호평(○) / 좋은 호평(×)
- 예견하다(○) / 미리 예견하다(×) 역전(○) / 역전 앞(×)



활동 1

- (1) 일상생활에서 높임 표현이 잘못 쓰이는 경우를 다룬 뉴스입니다.
- (2)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는 상황입니다.
- (3) (예시 답안) 어머니와 백화점에 갔을 때 점원이 제가 사려는 옷을 높여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활동 2

(예시 답안) 나는 부모님과 청소기를 사러 갔을 때, 점원이 “이 청소기는 7만 원이십니다.”라고 말했다. 청소기를 높여 말해서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

활동 4

나왔습니다 커피입니다 입니다 이에요

활동 5

입니다 입니다 이에요 나온 이에요